

##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발표

-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 종합대책 수립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약취·유인 미수 사건(’25.8.)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9.11.)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종합대책 수립 전부터 경찰청은 경찰관 5만 5천여 명을 동원해 학교 시간대 학교 및 통학로 순찰을 강화(9.12.~)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할 계획이다.

\*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 추이(가족 간 범죄 제외): ’23년190건 → ’24년157건 → ’25. 10. 31. 187건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 발생하는 원인은 세 가지로 분석됐다.

첫째,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이다. 어린이 유인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호의로 치부하는 경우 고의 입증이 쉽지 않고, 추행 등의 목적이 없는 약취·유인 범죄와 미수범은 처벌\*이 비교적 경미하다.

\* 현행법상 약취·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며, 양형기준 역시 높지 않음

이로 인해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갖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범죄에 대한 저조한 인식 문제이다. 장난 등을 이유로 어린이에게 쉽게 접근해도 된다는 인식에 비해, 정작 어린이가 느끼는 공포나 불안감에 대한 공감이나 부족한 문화도 범죄 발생 원인으로 꼽힌다.

셋째,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이다. 지역별 학교 주변 시시티브이(CCTV) 설치 편차가 크고, 시시티브이(CCTV) 관제 시에도 육안 관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보호자 없이 홀로 귀가하는 어린이가 늘면서, 돌봄 공백에 따른 범죄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24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 1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엄정 대응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검거·보호 지원이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시시티브이(CCTV) 영상 분석·디지털 증거분석(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한다.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도 적극 적용하는 등 엄정한 수사 기조를 확립한다.

아울러, 사건이 중대한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해 범죄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다.

## ② 어린이·일반국민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강화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강화하여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 ③ 통학로·학교 주변 등 안전 돌봄 환경 조성

경찰,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을 확대한다.

위기상황 감지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시시티브이(CCTV) 설치를 늘리고,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아동안전지킴이를 확충하고,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하여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도 강화한다. 또한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 등도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한다.

- (안심 등하교 알림 서비스)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앱 등을 활용해 보호자에게 실시간 알림, 현재 경북·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 중 → 확대 추진
- (워킹 스쿨버스) 미리 여러 개의 버스 노선을 정하고, 하교지도 인력이 귀가 방향이 같은 해당 노선 이용 학생과 함께 이동하며 안심 귀가를 지원 → 확대 추진

정부는 안전·치안·교육·복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어린이 안전 범부처 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번엔 마련한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은 소중한 우리의 미래이며, 아이들이 매일 걷는 등하굣길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길이다.”라고 말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든 대책들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책임자	과 장 유지선 (044-205-4210)
		담당자	사무관 조호영 (044-205-4220)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책임자	총 경 주승은 (02-3150-2048)
		담당자	경 정 김민성 (02-3150-2248)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용하 (044-203-6657)
		담당자	사무관 이영지 (044-203-665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책임자	과 장 모두순 (044-202-3380)
		담당자	사무관 육성훈 (044-202-3447)